

규칙과 규율은 준수되어야 한다.

규칙으로 제정하였다고 해서 사람이 전부 규칙을 따른다고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인간은 지식을 가지고 원칙을 항상 실천한다고 할 수 없다.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을 때는 하지 않으며 전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안전하게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Rule (규칙과 규율을 합쳐서 Rule이라한다)을 지키는 것이 자기실현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초적인 규칙일수록 알아보기 쉬운 것이다.

개개인의 안전태도는 그들이 속한 직장과 집단의 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규율성이 결핍되어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안전과 위험사이에서 항상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하기 쉬운 것이다.

규칙과 규율은 어떻게 다른가?

어느 쪽이나 “표준으로 지켜야 할 일을 바르게 한다.”는 뜻이지만 규칙은 음악의 장단이나 한시(漢詩)의 대구(對句)에 있어서의 순서와 같은 의미가 있으며 규율은 규칙뿐만 아니라 약속에 따르는 순서와 질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으므로 규칙보다는 의미하는 바가 넓다.

직장의 규율에는 사업장에서 정한 규칙 외에 직장과 집단에서 결정된 원칙적인 사항이 포함된다. 직장에서 일상행동의 안전원칙은 규칙에 없어도 직장의 규율로써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통로를 걷는 법, 물건을 잡는 법, 정리정돈기타 안전에 관계되는 것은 전부 직장의 규율이므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의 복장은 군인이 전투에 임하는 군장이며 평상복과는 다르다. 인간은 낙천적이 되기 쉬우며 각오가 무너지기 쉬우므로 모양을 갖추어 각오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에 열심인 사업장에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전하게!”가 상호간에 하는 인사말이다. 인사는 인간관계의 시작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인사라고 하는 하나의 규율이 안전의 분위기를 높여주는 그 효과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규율은 직장의 동료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무너지는 것이며, 규율이 없는 곳에 안전은 결코 확립되지 못한다.

